



1 65인치 커브드 UHD OLED 4장을 이용해 만든 장미꽃 형태의 조형물
2 2019 CES에서 공개한 크리스털사운드 OLED TV형 디스플레이로 패널 자체가 스피커가 되어 몰입감을 높여주는 혁신기술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2020년 OLED 매출 비중 50% 만들 것”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이 2019년 'OLED 대세화'를 선포하며 OLED 사업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미국 'CES 2019'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최고경영자(CEO) 한상범 부회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 강인병 부사장, 전략·마케팅그룹장 송영권 전무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상범 부회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형 OLED 사업이 흑자 전환했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 하반기에는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올해도 LG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으로 투자해 OLED 대세화를 앞당기는 한편 상업용과 자동차용 사업

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OLED와 육성사업의 매출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 차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를 위해 대형 OLED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형 P-OLED(Plastic OLED) 사업의 근본적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상업용 및 자동차용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일등 사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부회장은 "2017년부터 시작한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가 올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반드시 OLED 대세화를 성공시켜 LG디스플레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OLED로 다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